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문학 자료/ 서성수 국어

부르는 대상/ 상대 높임법/ 대화의 형식 중 하나라도 있으면 대화적 어조(말을 건네는 어조) 하나도 없으면 독백적 어조 단 부르는 대상의 주인!	CF) 대화 형식은 말을 주고 받아야 함 대화적 어조보다 작은 개념
부르는 대상이 눈앞의 사람이 아니면 독백! 이때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나 대화적 구성!	

대화적 어조

선지에서 : 대화체/ 대화적 어조/ 말을 건네는 어조로 등장

기준점: '청자'가 존재하면 대화적 어조

청자가 존재하는 형태:

'부르는 대상'이 나타나거나(향단아)

'상대 높임법'을 쓰거나(저를 버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대화의 형식'을 취하면 된다.(a:어디가?// b: 님 보러가)

설명:

대화의 경우에는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 반면

대화체에 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부족 지금부터 쉽게 정리하자.

대화체의 핵심은 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안에 화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순간 즉 청자만 있어도 대화체는 가능하다.

시 안에 청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때는 직접 부르는 대상이 나오거나

상대높임법을 쓰거나

직접 대화를 주고 받는 대화의 형식 혹은 대화 구성이 등장할 때이다.

이 세가지 기준점 중 하나라도 나오면 대화적 어조로 봐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준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대화적 어조이다

'대화 형식' 혹은 '대화 구성'의 경우에는 청자에 청자의 대답이라는 옵션이 추가된 것으로 대화적 어조보다 작은 개념이다

대화 형식이면 대화적 어조이다 0 언제나 참트루

하지만 대화적 어조이면 대화 형식을 취한다 X 틀린 경우도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문학 자료/ 서성수 국어

독백적 어조

선지에서 : 독백적 어조/ 독백체로 등장

기준점: '눈 앞의 청자'가 없다면 독백체

눈 앞의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

대화적 어조가 아닌 경우 즉

'부르는 대상'도 없고(~아 X)

'상대 높임법'도 없고(하는구나)

'대화의 형식'도 없는 경우이다.(a:// b: X)

혹은 부르는 대상이 있더라도

'대상이 눈앞에 없거나'(떠나간 님아)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꽃아)

설명:

독백체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식으로 쓴 문체이다.

독백체의 핵심은 시적 화자의 눈 앞에 청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때는

부르는 대상도 없고 상대 높임법도 없고 대화의 형식도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부르는 대상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백체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체이면서 동시에 독백체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때는 대상이 눈앞에 없거나

사람이 아닌 대상을 부르는 경우로 실질적인 대화가 아니라 대화의 형태만 빌려온 것이다.

이때는 실질적인 내용상 독백으로도 봐주어야 한다.

쉽게 난간에 앉아 떠나간 님을 부를 경우처럼 비록 '님아'라고 청자를 부르더라도 앞에 없을 경우에는 독백적 어조도 가능하다고 정리하자

수능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나 대화적 구성 아니면 독백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등장한다.